

Pamiry

2014 1월~3월 vol.04



“생각하라 2014!”

첨마의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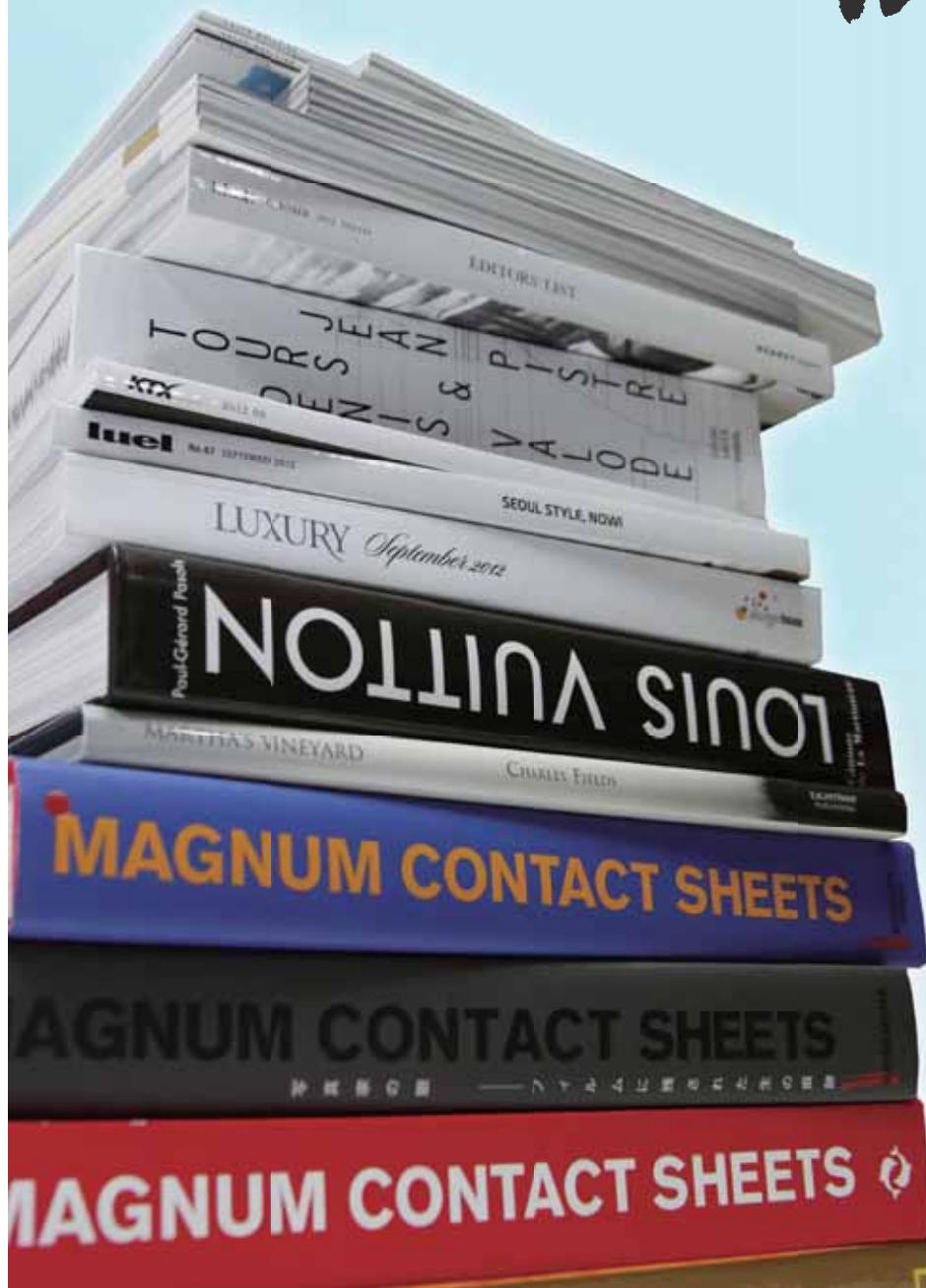
다시 일어나는 용기에 대하여

초강력 MEN 파워 PREPRESS

세계를 무대로

인쇄업계의 강자를 꿈꾸다

고객의 만들면 명품이다



고객의 꿈을 인쇄하는
대한민국 인쇄 1위 팩컴코리아

팩컴은 품질, 가격, 납기 만족을 넘어
고객의 생각과 꿈을 인쇄하여
고객의 가치를 최상으로 구현한다는
고객 가치 경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Pacom

Pacom AAP

MIRAEING

Pacom Books

BOOK JIHYERO

Book Make

BOOKMATE



vol.04
2014 Jan. Feb. Mar.

CONTENTS

Pacom
Packcom Korea

- | | | |
|----|----------------|------------------------------|
| 02 | 창찬합니다 | 패밀리 칭찬릴레이 |
| 03 | Message of CEO | 다시 일어나는 용기에 대하여 |
| 04 | 도서전 | Frankfurt Book fair 방문기 |
| 05 | 공감 | 청마의 해 |
| 06 | 추계야유회 | 2013년 추계 야유회 |
| 08 | 힐링로드 | 눈꽃 구경하러 놀러 옵서예 |
| 10 | 피플 | 열정가득! 의욕충만! Prepress팀 최주일 대리 |
| 11 | 시 | 첫눈 오는 날 만나자 |
| 12 | 동호회 | PACOM 신규 동호회 탄생 |
| 13 | 가족의 편지 | 윤석도 과장의 가족 |
| 14 | 패밀리한마디 | |
| 16 | 팩컴파트너 | 아그파 |
| 17 | 부서소개 | 초강력 MEN 파워 PREPRESS ! |
| 18 | 겨울이야기 | 겨울 나기 프로젝트 |
| 19 | 팩컴 창립기념식 | 세계를 무대로 인쇄업계의 강자를 꿈꾸다 |
| 20 | 찰칵소리 | |
| 22 | 팩컴뉴스 | |

패밀리 칭찬릴레이



제본사업본부

송임순 사원

몇 년 전을 돌아보니, 접지검사로 아가씨 한 명이 출근을 하니, 잘 데리고 일하라고.. 아가씨란 소리에 설레는 마음이 가득 했지만 출근하는 순간 웬 남자분이 들어오는데.. 짧은 파마머리, 랜드로바 신발, 청바지에 빨간 오리털잠바..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난 지금까지도 첫

모습이 생각납니다. 땀으로 범벅이 되어도 1년 365일을 추우나, 더우나 땀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동료이자 누나입니다. 여자 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도 서슴지 않게 하시는 걸 보면,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처음 입사 때부터 정년 퇴임한 지금까지도 그 모습 그대로 한결같이 열심인 모습의 송임순씨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제본사업본부

박종천 대리

음... 장점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칭찬해야 할 지 정리가 되지 않지만, 이 사람은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위, 아래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최선을 빼면 시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좋은 사람입니다. 맡은 일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는데 그 모습은 정말 남자인데도 예뻐 보일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천 대리님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인쇄사업본부

지현구 대리

항상 힘든 일과 속에서도 웃음을 잊지 않으시며, 그런 모습에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연스럽게 웃게 하는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이런 모습과 더불어 인자함까지 갖추셨습니다. 다가가서 말을 걸면 언제나 편안하게 다정다감하게 상대방을 대하십니다. 맡은 임무에 충실히하신 모습은

주변 사람들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도 기분 좋은 웃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오래오래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PREPRESS사업부

이정우 대리

업무시간에는 없는 듯 조용한 분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맡은 일에 항상 묵묵히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업무뿐 아니라 모든 일에 의욕이 넘치셔서 믿음직합니다. 힘들어도 주위 사람들에게 내색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열정으로 가득 채워진 지금처럼 멋진 모습 그대로 남기를 바랍니다.

Message of CEO

다시 일어나는 용기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기를 얻고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말들이 있다.

칠전팔기(七顛八起), 백전불굴(百戰不屈), 견인불발(堅忍不拔), 오뚝이 정신 등,

넘어지고 실패하고 희망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주며 새로운 각오를 가다듬게 하는 말들인 것 같다.

즉,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는 참으로 소중한 말들이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요셉이라는 사람의 칠전팔기의 삶을 참으로 리얼하게 보여준다.

어린 시절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죄악의 처지에서 애굽의 총리에 이르는 기적의 삶을 보여준다.

종의 신분에서 총리로의 인생역전 드라마는 오늘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주어왔다.

최악의 처지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었다.

긍정적 마인드의 사람은 늘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돋보이게 마련이고, 스스로 성공으로 자신을 이끌어 나간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가면 된다. 많은 도전과 실패가 일상에서 때론 우리를 좌절케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는 원동력임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

올해 내가 경험했던 도전과 실패는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그것들은 내게 다가왔던 최고의 선물이었을텐데.

다시 돌이켜보며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

팩컴코리아(주) 대표이사 김 경 수

2013 Frankfurt 방문기

2013년 10월, 추위자는 날씨 속에도 책이라는 하나의 주제만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열기의 현장, 프랑크푸르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Frankfurt는 어떤 도시 인가요?

북부 라인강의 지류인 마인강 연변에 있는 상공업도시로, 문호 괴테의 출생지로 널리 알려졌으며, 19세기까지는 국왕의 선거 및 대관식이 거행 되던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항공, 철도, 자동차 등 교통의 요지가 되었으며, 독일의 경제, 금융의 중심지로서 주식, 상품거래소가 있고 매년 국제 박람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람들에게 팩콤에 대해 소개하고 주기적인 연락을 위해 명함을 교환했습니다. 관련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부스에 있기만 해서는 고객을 만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부스로 찾아가 적극적으로 팩콤에 대해 알리고 관심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했습니다. 기존에 거래하던 회사 부스에 찾아가 신뢰감을 돋우기 하는 일도 잊지 않았으며 때로는 용지 및 클로스 등 자재에 관한 정보 및 샘플 등을 얻기도 합니다.



2. Frankfurt Book fair는 어떤 곳인가요?

세계 최대 최고의 도서전으로 독일 출판인서적상협회에서 주최하며 해마다 10월에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열립니다. 전세계 도서 저작권의 25% 정도가 사고 팔리는 세계 최대의 저작권 거래 전문 도서전으로서, 출판 관계자들이 좀 더 전문적인 논의와 협상을 하기 위해 일반인의 관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 총 다섯 개의 Hall에서 개최된 book fair는 유럽 및 미국 전시관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며, 출판뿐 아니라 전자 책(e-book)에 대한 특별 전시장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3. 팩콤은 북 페어에 참가하여 어떤 일을 하나요?

단독 부스로 참가하기도 하나, 올해는 대한인쇄협회를 통한 공동 부스로 참가하여 팩콤에서 만든 책을 전시했습니다. 책에 관심을 보이는 사



4. 참가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제게 첫 출장지로서 Frankfurt book fair 참가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팩콤에 입사하여 처음 인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인쇄시장의 규모에 대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번 book fair 참가를 통해 세계 시장의 흐름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고, 인쇄에 대한 시각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마트 시대에 들어서면서 책보다 전자 책(e-book)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것을 직접 보면서 전자 책 시장 속에서도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책과 인쇄물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Fair장을 다니다 보면 유독 크게 보이는 부스들이 있는가 싶으면 중국 업체였고, 그런 규모만 보아도 중국 시장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큰지를 몸소 체험하면서 중국과의 경쟁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안에서 새로운 고객을 만드는 것은 물론 기존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운정 jody_lee@gopacom.com

2014 청마의 해, 갑오년 말띠

명마, 준마가 되어 팩컴이라는 마차를 끌고 이상향을 향해 달려가자.



드디어 2014년 새해가 밝았다. 팩컴이 창립한 지 15주년이 되는 해 이기도 한 올해는 갑오년 말띠 해다. 말은 자유롭고 독립심이 강하며 화끈하고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한 면을 보이며 아주 예민한 동물이라 할 수 있다.

옛날부터 말은 인간과 늘 같이 해 오면서 온순한 초식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잔혹한 전쟁터에서 수천 년간 인간과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해온 동물이다. 인간은 그들에게 이름까지 부여하여 명마라 칭하고 마지막 장례까지 치리웠다고 한다.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의 적토마, 조조의 조황비전, 동키호테의 늙은 로시난테, 역발산 기개세, 항우의 오추마, 이성계의 유린청, 나폴레옹의 마렝고, 알렉산더의 부케팔로스 등 이 대표적인 명마로 꼽힌다.

칭기즈칸이 방대한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도 유목민이었던 그들에게 말과 마차의 기동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구석기 시대 동굴 벽화와 수많은 고대 그림들에서 말들이 등장하는 것은 인간과 말이 그 만큼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그 역할이 변하긴 했으나 말은 아직도 육체적 능력, 영리한 판단력의 대명사이다. 현재 말은 이동 및 통신 수단은 아니지만, 인간과 함께 올림픽에 출전하는 유일한 동물이며 재활 승마를 통해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등 여전히 인간에게 중요한 동물로써 끈끈한 유대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팩컴은 2014년 올해를 전환점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영업 매출 부진의 고리를 끊고 말에게 부족한 지구력과 인내력을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세계를 향해 질주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황철원 lonestar@gopacom.com



2013년 주계 야유회

햇살 좋고 따뜻했던 개천절 아침, 팩컴그룹 임직원들은 수리산 수암봉 등산길에 올랐습니다.



10월 3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 안산시 수암동
에 위치한 팩컴 수암 공
장에 팩컴그룹의 직원
들이 삼삼오오 모여들
었습니다.

직원들은 넓은 공장
마당에 줄을 맞춰 서
서 김경수 사장님의 축

사와 이원성 부장님의 주의 사항을 들은 뒤,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수암
동 길을 따라 수리산으로 향했습니다.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수리산 길에는 중간 중간 약수터와 쉼터가 있어
산행이 힘든 사람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수리산 수암봉 정상에 올라 산 아래를 둘러보면, 안산시 수암동과 함께 군포
시와 인양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등산 끝에 정상에 모인 직원들은 함께 사진
을 찍으며 힘든 산행의 기념을 남겼습니다. 힘들었지만 즐거운 산행을 마치고
내려온 직원들을 맞은 것은 팩컴그룹의 급식 업체인 (주)ECMD에서 준비한 야
외 뷔페였습니다. 김밥, 잡채, 족발, 탕수육, 각종 과일들뿐만 아니라 즉석에서
굽는 삼겹살 바베큐 냄새가 직원들의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모두들 수암 공



장 마당의 그늘에 모여 준비된 음식과 음료를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가 마무리 될 즈음 추계야유회의 두 번째 코너인 족구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족구대회는 안산공장, 팩컴 군포공장 4층, 제본팀, 사진, 인쇄팀으로 나눠 경기를 치렀습니다. 경기 중간 쉬는 시간에, 번외 경기로 협력사 임원분들과 팩컴 그룹 부서장들간의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경기 결과는 1위 안산 공장 팀, 2위 4층 팀, 3위 제본 팀, 4위 인쇄 팀으로 각 팀에는 소정의 상금이 차등 지급 되었습니다. 안산 공장 팀의 승리에는 안산 공장 직원들의 단합된 응원의 힘이 컸습니다. (안산 공장 팀 선수들은 등산을 하지 않고 족구 연습을 했다는 제보가 있기도 했습니다!)

족구 경기를 끝으로 마무리된 팩컴그룹 추계 야유회.

팩컴그룹 임직원 모두에게 잊지 못할 가을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박미선 tamgru@gopacom.com



눈꽃 구경하러 놀러 옵서예

팩컴 가족 여러분 춥다고 웅크리고만 계신 거 아니죠?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눈이 내릴 무렵 한라산으로 떠나 보시는 건 어떠세요?

한라산의 한(漢)은 은하수(銀河水)를 뜻하며, 라(擎)는 맞당길나 [相牽弓] 혹은 잡을 [捕]로서, 산이 높으므로 정상에 서면 은하수를 잡아당길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한다. 고도가 높아 여러 층의 기후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동식물상을 포함하고 있어 한라산의 절경은 그 자체가 걸작품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한라산을 오르는 방법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윗세오름까지 오를 수 있는 어리목과 영실, 백록담까지 갈 수 있는 관음사와 성판악, 그리고 가장 최근에 개방된 돈내코에서 한라산에 오를 수 있다. 내가 선택한 코스는 초보자도 쉽게 오를 수 있다는 어리목과 영실 코스였다. 쉽게 오를 수 있다는 말에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젠도 준비하지 않고 산행을 시작했다. 하나 이게 웬일? 발은 쭉쭉 미끄러지고 발끝에 힘만 잔뜩 주고 걸었더니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다. 다시 하산하여 매점에서 아이젠을 구매 후 안정적인 산행을 시작했다.



추위 때문에 발끌이 시려
찌릿찌릿한 느낌, 윗세
오름에서 먹은 컵라면
맛은 카~하..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즐거
움을 선사해줍니다.





어리목 탐방안내소에서 1시간가량 지나면 사제비 동산을 만나게 된다. 이곳은 가파른 경사 덕에 많은 체력 소모가 요구된다. 오리털 파카도 벗어 던지고 열심히 걸으니 평坦지형인 만세 동산을 만나게 된다. 눈앞에 펼쳐진 하얀 평지길, 굽이굽이 진 산길 옆으로 탁 트인 전망들.. 신책하듯 걸으니 윗세오름 대피소에 다다를 수 있었다. 야호~ 야호를 연발하며 한라산 등반의 하이라이트 컵. 라. 면 먹기!!! 열었던 손에 컵라면 사발을 쥐게 되니 감동의 도가니~ 밖에서 먹는 라면은 추우면 추울수록 그 맛이 배가되지 않는가.. 하물며 한라산 중턱에서 먹는 컵라면 맛이 어느 진수성찬에 비할 수 있을까.. 후루룩 몇 번 들이키니 라면은 바닥을 드러냈다. 커피로 깔끔하게 마무리한 후, 영실 코스로 하산을 시작했다.

뽀드득 뽀드득 눈 덮인 산을 밟는 느낌.. 이것이 진정 겨울산행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했다. 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탁 트인 시야를 볼 수 있는 어리목과 영실탐방로 길을 걷다가 뒤를 돌아보면 구름이 어느 새 발아래에 와 있었다. 지루할 틈 없이 하산하던 중 영실 탐방로의 가장 난 코스에 접하게 됐다. 경사가 비교적 높은 영실분화구 능선은 계단으로 되어 있다. 거센 찬 바람과 고군분투하며 계단을 내려가니 다리가 후들 후들.. 초코파이 한 입 베어 물고 체력 급 충전 후 언제 그랬나는 듯 콧노래 부르며 영실 휴게소에 도착했다. 새까만 까마귀 떼가 반기는데 그 모습이 스산하기도 하면서 신비로운 광경을 만들어 냈다. 변화무쌍한 한라산 날씨 덕에 입산이 가능할까 걱정도 많았는데 아름다운 설국을 감상할 수 있어서 이번 나의 힐링로드도 대성공이다.

주선영 sunyoung@gopacom.com

꽁꽁얼어버린
주선영

나의 발자취	입산은 어리목 탐방로를 시작으로 윗세오름을 기점으로 영실 탐방로로 하산 하였다.
산 행 시 간	5시간.
산행 준비물	아이젠, 스파찌, 모자, 장갑, 간단한 간식 (초콜렛은 필수!)

여기서 잠깐! 드신 음식물과 쓰레기는 꼭 챙겨서 하산하세요. 소중한 자연을 지키는 팩캠인이 됩시다^^



열정가득! 의욕충만 Prepress팀 최주일 대리



팩컴에서 하시는 업무는 무엇이며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2003년 2월 성인문화사에 입사하여 현재 11년째 Prepress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1차적으로 고객이 보내온 데 이터, 즉 Quark, Indesign, Illustrator, Photoshop, PageMaker 등의 파일을 교정 후에 HP로 교정지를 출력 후 고객에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PDF 파일이 인쇄 할 파일로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대첩 작업을 하고 CTP로 출력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광고 디자인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는 분의 소개로 디자인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근무하던 중 '매킨토시'라는 컴퓨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디자인 관련 심화 공부를 하고자 결심하게 되었고, 바로 학원에 등록해 Quark, Illustrator, Photoshop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다른 회사에 먼저 입사하셨는

데, 팩컴에 입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학원을 다니던 중 디자인 회사를 퇴사하고 좋은 사람들 그래픽센터 편집 팀으로 입사했었습니다. 그 곳에서 2년간 대리로 근무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좋은 사람들 사장님께서 성인문화사를 추천해 주셨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팩컴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는, 보통 윤전기에서 인쇄할 때는 A면(앞)과 다르게 B면(뒤)는 반대로 인쇄판을 넣어 줘야 합니다. B면이 반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잉크 키인쇄(칼라 값) 또한 후면에 반대로 생성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후면까지 모두 잉크 키가 A면과 같이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관계로 컴퓨터에서 1대씩 잉크파일 후면을 작업자가 일일이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시간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느껴서 고민하면 끝에 이 부분을 자동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고, 지금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을 하면서 개선점을 찾아 보완한다는 것은 스스로도 뿌듯한 일이었고 지금까지도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업팀에서 Boxed calendar를 외주에서 대첩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진부로 가져왔을 때,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꼭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해결했을 때입니다. 현재도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보람을 느낍니다.

회사 생활 하시면서 힘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누구든 회사생활을 하면서 힘들지 않은 순간은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Prepress 사업부의 특성상 책의 인쇄 및 제본 등, 모든 공정과 관련된 작업은 파일로 마무리되고 교정 출력 후 고객이 ok 하면 그 때부터 인쇄가 진행이 됩니다. 최근에는 고객들의 파일 프로그램이 다양해져 문제가 종종 발생 합니다. 그래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여 담당자들의 밝아지는 얼굴을

보았을 때와,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회사에서 인정해 주시고 우수사원으로 상을 받았을 때, "아! 내가 그래도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힘든 일이 있어도 가뿐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께 한마디 하신다면?

동료들을 보면 많이 지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PDF 파일에 이상이 없는지 체크해야 하고 일의 특성상 높은 집중력과 차분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에 집중하다 보면 피로가 몇 배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이 후 작업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긴장하고 일을 합니다. 많이 힘들지만 중간에 휴식도 취하면서 담소도 자주 나누면 좀 더 활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Prepress 사업 팀, 파이팅!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리님의 인생 목표는 무엇인가요?

문제 파일을 체크하고, 걸러줄 수 있는 기능적인 면을 향상시켜 Apogeex와 접목시키고 싶습니다. CTP와 파일의 모든 것을 처리하는데 있어 최고의 능력을 갖추고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목표이자 바램입니다.

주변 동료들의 한마디



윤영봉 대리님 최주일 대리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상 연구하는 동료입니다.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부디 장가 좀 가길 바랍니다!



서무광 과장님 작업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해결하려 하는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동료입니다.

첫눈 오는 날 만나자

정 호 승

첫눈 오는 날 만나자

어머니가 싸리벗자루로 쓸어 놓은 눈길을 걸어
누구의 발자국 하나 찍히지 않은 순백의 골목을 지나
새들의 발자국 같은 흰 발자국을 남기며
첫눈 오는 날 만나기로 한 사람을 만나러 가자

팔짱을 끼고

더러 눈길에 미끄러지기도 하면서
기난한 아저씨가 연탄 화덕 앞에 쭈그리고 앉아
목장갑 낀 손으로 구워 놓은 군밤을
더러 사 먹기도 하면서
첫눈 오는 날 만나기로 한 사람을 만나
눈물이 나도록 웃으며 눈길을 걸어기자.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첫눈을 기다린다

첫눈을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첫눈 같은 세상이 오기를 기다린다.
아직도 첫눈 오는 날 만나자고 약속하는 사람들 때문에
첫눈은 내린다
세상에 눈이 내린다는 것과
눈 내리는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얼마나 큰 축복인가

첫눈 오는 날 만나자

첫눈 오는 날 만나기로 한 사람을 만나
커피를 마시고
눈 내리는 기차역 부근을 서성거리자



12월 PACOM 신규 동호회 탄생

탁구부로 직원 모두 둥쳐 둉쳐~ 건강한 겨울 되세요~!



눈발 날리는 겨울, 추운 날씨에 몸이 계을리지지 않았나요? 운동하고 싶어도 눈도 오고 혹여나 다치지 않을까 걱정돼서 망설이고 계시다고요? 그런 패컴 가족분들을 위해 신규 동호회가 생겼답니다. 그것은 바로 남녀노소!! 나이불문!!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탁구 동호회입니다!!

장소는 바로 식당 옆에 있는 멋진 신축 탁구장입니다.

점심,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30분씩 매일 운영하고 있으며, 혹시 탁구를 배워 본 적이 없어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회장님께 문의해 주세요.

올해 12월에 처음으로 시작했지만 별씨 동호 회원이 19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의 참여도도 높아지고 있으니 운동에 관심 있는 여직원분들 참고해 주세요.

아직 탁구 동호회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탁구 동호회를 빛내 줄 좋은 이름이 떠오르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조원근 joeel@gopacom.com

회장 : 성문기 차장 (010-5146-1224)

총무 : 조원근 사원 (010-2763-2216)

운영 계획 : 매일 점심과 저녁시간 중.

(2~3달에 한 번씩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린 대회도 계획 중)





언제나 우리를 위해
목 목히 일하시는 아빠께***



인쇄사업본부 윤석도 과장의 가족

수 년을 넘나들이 일하시는 아빠..

아빠는 일하시면서 힘들고 지쳐도 우리를 때려에 침하고 더 열심히 일하게 도와다고 하시죠.

저는 아직 학생이라 돈 버는 일도 얼마나 힘든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런 때마다 제가 앞으로 더 열게 학교 생활을 하고, 더 열심히 고생해 주셨던 생각이 들어요.

아빠가 딸배를 오랫동안 피셨잖아요? 어렸을 때 글씨 수업을 들으면 폐가 썩은 사진을 보여주는데..

'우리 아빠도 저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절로 나면서 걱정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아빠 글씨 하시라고 계속 말쓰 드렸었는데, 매번 말로는 글씨한다 하시고선 항상 실패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글씨에 짐작 성공하신걸 보고 자랑스러웠어요.

글씨에 성공하셨어서 상그까지 받는 아빠를 보고 제가 더 뿌듯했어요.

사실 아빠랑 둘이서 놀러 갔던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저는 꼭 먼 데로 떠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추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빠와 저는 사소한 추억이 많으니까요.

어린 때 고통하는 아픔 있다고 말하면 당장 데리고 오라고 하며 제편을 들어주셨던 아빠..

배고프다고 하면 바로 부엌으로 들어 가셔서 라면이라도 끓여주셨던 아빠..

나중에 누워서 제게 술사탕이 있어 아구 경기를 설명해 주었던 아빠..

학교 들판에 저를 데리다 주시며 이전처럼 학교 생활을 물어보 주시던 아빠..

이렇게 일상 속의 소소한 사건들과 대화들이 아빠와 제사이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던 거 같아요.

몇 년이 지나 제가 어른이 되고 앞으로 겪을 일들이 지금보다 더 힘들겠지만,

아빠가 제 가도 드가 되셔서 제가 낙오 되거나 일할 당시 입장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엎어서 지켜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려면 언제나 건강하시길 해요~

아빠 감사합니다.

이 명절 : 겨울 아주 어려운, 온한해 나우리 잘 했어!
백기 축 건강하고 높은 운수로 새해를 헌하게 날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책걸 화이팅
대박 나시오 (책걸과 함께하는 새해)
이 진흔 : 책걸 화이팅 ♪ 새해에도 아자이

지현수 :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도록 많이 받으세요.
이성민 새해 올드 있지만 이루시길...
유태정 : 사장님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장영웅 : 올한해 아무리 잘해 사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이동훈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 달성되세요!!
태승호 : 아쁜 한 해였고...
2014년도 모든 일
이루어진 일 빙나의 새해

말처럼 기운 넘치는
행랑가 되시길!

2014년 '잘 살찌용~'

한해 전망 2014년
새해에는 농경이 되는 2014년
한해. 전망 2014년
새해에는 농경이 되는 2014년

PACOM 여러분,

새해에는 더 많은 복과 좋은 기운이 가정과 개인에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2014년
하루를 지내고 나면 더 즐겁게 하루가 있고
그때를 만날 때면 더 대단한 마음으로 새롭게
새해를 맞고, 새해를 더 행복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2014년, 되겠습니다!
Happy New Year!!!

2014년 하늘은 날아온 신비로운 유니콘처럼
더불어 더 멋진 힘을 품을 수 있는 멋진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가정에도
평화와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3년 보다 건강하고
2013년 보다 더 행복하시고
2013년 보다 더 부자되는
2014년 되세요 PACOM!!

2014년 정말 예쁘게
변화하시는
한해 PACOM의 기원이요~

새해에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하세요~ 가정과 개인이
비록 어렵습니다.

오늘 사세요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마무리하고
2014년에도 건강하고, 하시는 일
다 잘되사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2014년도
기억되시길!!

내년 2014년
만들 대박나는
행운이 되세요~
행운이 되세요~

온라인 계획했던 일 이루어졌다면 다시 힘들어서 이번엔 꼭 이루길 — 하여금

2014 대장가족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미우

- 팩경가족 여러분 2014년 ~~동물이~~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평안한 한 해가 되시길. - - Young

- CH_3^+ 태양이 나서면 - C₅ 사랑합니다 여러분

100% 200%
A1 A2
A3 A4 A5

모두들 건강하시구요.

대부나는 경해가 되세요?

는 복 그들 빠 많아 많아 ~

— 서해마는 우리 품질 가족
경쟁하기는 바랍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한 순간
되시

- 새해에는 팩질이 알게 1위되는 수출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Family

- 2014년 세계에는 간접합고 철거장 대가 속성 나옵니다. 기획

tabindex="0" value="0" style="width: 100%; height: 100%; border: none; outline: none; font-size: 1em; font-family: inherit; color: inherit; margin: 0; padding: 0; background-color: transparent; border-radius: 0; border-bottom: 1px solid #ccc; border-left: 1px solid #ccc; border-right: 1px solid #ccc; border-top: 1px solid #ccc;"/>

모두 새해에는 건강하세요

비록 일 생활이 깊어졌다

둘째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기는 바랍니다.

Pacom Family
Pam

의정부 2019. 11. 2. ~~2019. 11. 2.~~ 을

템복한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작자: 박민수

내년에도 축구체육 전경기 개최

내일은 저녁에 놀러온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무사히 갑을

오해는 여러 사람으로 이해

기쁠일 많이 았듯이

내년에도 행복이 길을 걸

오해도 잘 봐주시고 사랑해

2014-05-14
14
2014-05-14
2014-05-14
2014-05-14
2014-05-14
2014-05-14

10

올해는 물이 높아지면
내년에는 물이 바빠으면 좋겠습니다
기상하고나 캠핑 — 새해! — 힘내서
소망하는 모든 것

By 8/7/12
2783mBn
1/1/12

1. $\frac{1}{2} \times 10^3$ (kg/m³) \rightarrow 10^3 kg/m³
2. 10^3 kg/m³ \rightarrow 10^3 kg/m³



Pacom's Partner

AGFA

팩컴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아그파 산업입니다. Family 지면을 통해 저희 회사를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그파는 상업인쇄, 신문인쇄와 포장인쇄뿐만 아니라 사진 & 디스플레이인쇄 등 인쇄산업 전반에서 최고의 솔루션 공급업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그파 그래픽스는 130년 이상의 혁신과 경험으로 그래픽산업의 요구에 맞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전문성, 테크놀로지 그리고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아그파는 전 세계의 고객과 소통하며 고객이 어디 계시든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통은 아그파에 대한 인쇄 회사의 요구와 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요구사항을 철저히 습득하고 대응함으로써 고객과 최적의 상태로 연결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은 우리 제품이 상호 연결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아그파는 단순한 판매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구성된 생산과정과 그 프로세스의 관리를 지원하는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아그파의 진화된 워크플로우 솔루션은 각

기 다른 공정간의 연결을 통하여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술 리더십은 아그파 전략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전문가의 요구에 충족되는 제품 및 솔루션을 유지하고자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고 있으며, 전세계 각지의 연구센터에서 매년 수익의 일정부분을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그파 본사는 벨기에 안트워프에 위치하고 있고 전세계 약 120개국의 국가에서 영업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4개 대륙에 R&D 및 인쇄판의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제조현장은 글로벌 품질관리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아그파는 31억유로(4조6천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우리는 인쇄업계에서 다양한 분야에 최고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제공합니다. 또한 아그파는 우리 고객들이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잉크와 물의 소비를 줄이며 에너지를 절약하여 궁극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노력과 제품으로 아그파는 팩컴과 함께 인쇄 산업을 성장 발전시키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여 “팩컴의 명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근 joeel@gopacom.com



초강력 MEN 파워 PREPRESS !

세계 최고의 Graphic Industry를 선도하고 끊임없이 up-grade 하고 있는 pacom이 자랑하는 부서 PREPRESS 사업부는 24시간 365일을 고객의 요청에 최적의 인쇄 사양을 맞추기 위해 오늘도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멋진 사나이들의 부서이다.

PREPRESS부서는 회사 2층에 위치하고 있다. 2층 계단에 올라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면 우선 부서장의 경상도 사투리가 들려온다. 사투리와 편집 단어가 조화롭게 섞여있는 토속적인 대화 소리는 이 곳 부서를 확인케 해준다. 남들보다 평균 신장이 큰 조상용 부장은 무게감 있는 중후한 멋이 풍겨져 나오며, 자상한 서무광 과장은 언제나 사모님과 함께 휴일이면 산과 들로 여행을 다니며 인생의 여유를 보여준다. 아침 저녁 1호선 급행열차 우수 고객인 윤영봉 대리는 탁구와 자전거를 즐기는 스포츠맨이다. 말없이 묵묵히 업무에 충실하신 김교원 과장, 인생 즐기며 살자고 외치는 최영묵 사원, 과묵한 훈남 이정우 대리, 액센트가 조금 강한 박덕재 사원, PREPRESS 부서의 유일한 총각 최주일 대리, 올해 입사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윤호 사원, 역시 올해 입사하여 부서의 막내로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회사에 적응하고 있는 양희영 사원 이렇게 TEN MEN은 인쇄와 제본의 첫 서막을 장식하고 있는 PACOM의 자랑이다.

이원성 kothi@sipk.co.kr





겨울 나기 프로젝트

따뜻하고 즐거운 겨울을 보내기 위한 겨울 나기 Tip!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줄 책



인생수업(법륜)

『인생수업』은 행복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 법륜 스님의 해안이 담긴 인생지침서를 소개하는 책이다. 즉문즉설을 통해 세대를 넘나드는 인생의 멘토로서 메마른 세상에 행복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스님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들려준다. 스님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후회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한 이유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휘둘려 자기중심을 잡지 못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나이 들면 드는 대로, 늙으면 늙는 대로, 주름살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담담히 자신을 받아들이 자기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 한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이 한마디 속에 스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상처받지 않고 행복해지는 관계의 힘(레이먼드 조)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소통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상대방이 내 진심을 알아줄까, 나를 이해하지는 않을까, 혹시 배신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사람들로부터 나 자신을 고립시킨다.” 『관계의 힘』은 스스로의 식막한 인간관계를 돌아보게 하며,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해 행복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호아킴 데 포사다와 함께 베스트셀러 『바보 빅터』를 썼던 저자가 홀로서기하며 새롭게 내놓는 최신작이기도 하다.

겨울 추천 영화



이터널선샤인

감독 : 마셀 콩드리

출연 : 짐 카리, 케이트 윈슬렛, 커스틴 던스트, 마크 러팔로, 일라이저 우드 등

기억은 지워도 사랑은 지

워지지 않습니다. You can erase someone from your mind. Getting them out of your heart is another story.

평범하고 차한 남자 조엘과 화려하고 따듯한 여자 클레멘타인은 서로 다른 성격에 끌려 사귀게 되지만, 그 성격의 차이 때문에 점점 지쳐가고, 심한 말다툼을 한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조엘은 아픈 기억만을 지워준다는 라쿠나社를 찾아가 클레멘타인의 기억을 지우기로 결심한다. 사라져 가는 기억 속 그녀의 모습은 사랑스럽게만 보이는데... 이렇게 사랑은 지워지는 걸까?

러브 레터

감독 : 이와이 순지

출연 : 나끼야마 미호, 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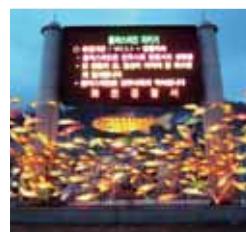
카와 에츠시 등

“잘 지내시나요.” 오늘도...

당신이 그립습니다. 14년 전 차마 전하지 못한 〈러브레터〉를 당신에게 보냅니다. 사랑했던 연인 후지이 이즈키가 죽은 지 2년, 그의 애호년 와타나베 히로코(나카야마 미호 분)는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하고 있다. 추모식 날, 히로코는 그의 중학교 졸업 앨범에서 지금은 사라진 그의 옛 주소를 발견하고 그라운 마음에 인부를 묻는 편지를 띄운다. 하지만 며칠 후, 후지이 이즈키로부터 거짓말처럼 답장이 날아오고, 히로코는 편지를 보낸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이름을 지닌 여자이며 그의 중학교 동창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겨울 낚시 축제

2013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



일시 : 2014년 1월

4일(토) ~ 1월 26

(일일)

장소 : 강원도 화

천군 화천천 및

5개읍면 일원

40cm가 넘게 어는 화천천의 두꺼운 얼음을 깨고, 바닥까지 보이는 맑은 물속에 노리는 산천어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얼음낚시로 잡는 “산천어 얼음낚시”와 차가운 얼음물에 뛰어들어 맨손으로 잡는 “산천어 맨손잡기” 등, 북한강 최상류 1급수가 흐르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화천군의 이미지와 부합하는 산천어를 접목한 산천어 체험프로그램들과 “얼음썰매”, “눈썰매”, “눈조각”, “얼음축구” 등 30여 종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볼거리가 가득한 겨울철 이색테마 축제이다.

제7회 평창 송어 축제



일시 : 2013년 12월 20

일 ~ 2014년 2월 2일

장소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오대

천일원)

우리 선조들의 삶의 팝박을 축제로 승화시

켜 눈과 얼음, 송어가 함께하는 겨울이야기라는 주제로 매년 1월 초순부터 1월 말까지 평창 송어축제가 한마당 펼쳐진다. 얼음 위에서 보면 오대천의 노니는 어류가 투명하게 보이는 가운데 송어낚시의 짜릿한 손맛을 느끼며 다양한 겨울 체험행사와 함께 전정한 겨울축제의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다.

박미선 tamgru@gopacom.com



세계를 무대로 인쇄업계의 강자를 꿈꾸다

팩컴코리아(주) 창립 14주년

대한민국 1등 인쇄물 수출 전문기업으로 성장한 팩컴코리아는 14번째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10월 16일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1917년 작은 활판인쇄소로 시작하여, 성인문화사로 국내 인쇄업계를 이끌어 왔으며 1999년 IMF 경제위기 여파 속에 팩컴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IT의 놀라운 발전으로 인쇄업은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오랜 전통과 기술력으로 여전히 국내 인쇄업계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 14번째 창립 기념식이 더 뜻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창립사를 시작으로 장학금 수여, 창립기념 우수사원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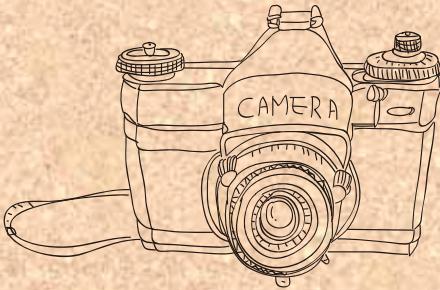
금연 성공자 금연펀드 시상식으로 창립일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자녀를 둔 11명의 사우들은 60만원의 장학금을, 10명의 대학교 자녀를 둔 사우는 100만원의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18명의 우수사원 시상식이 이어졌는데 작년과는 달리 높은 상금의 최우수상 수상자 발표에 모두들 열렬한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승준 과장, 성문기 차장, 안명철 본부장이 세 수상자분들은 1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팩컴코리아를 위해서 일해 주셨으며 사장님께서 직접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 설명을 덧붙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전직원 모두 내년 사상식의 주인공이 되고자 더욱 열정을 내뿜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금연 성공자를 위한 특별 시상식에서는 여러 번의 노력 끝에 상을 탄 분도 있으시고 한번에 성공하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고 4%의 성공률 안에 드신 시상자 하상진 대리, 신언철 과장, 윤석도 과장, 이병길 본부장 총 4분 다시 한번 축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루떡 절단식과 함께 축배를 들고 함박 웃음의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2014년 15번째 성대한 창립기념일을 기약하며 뿌듯했던 14번째 창립 행사의 주역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주선영 sunyoung@gopacom.com





찰칵소리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사진을 보내 주세요.
E-mail : suhee5336@nate.com





PACOM NEWS

창립 기념 추계 야유회



팩컴 그룹은 매년 창립 기념일에 전직원과 함께 하는 야유회, 등반대회 혹은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창립 14주년을 맞아 팩컴 안산공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수암봉 정상을 등반했다. 의미있는 등반을 끝내고 팩컴 안산공장에서 전직원이 모여 회사에서 마련한 뷔페식 식사를 즐겼다. 오후에는 푸짐한 상금을 걸고 팀별 족구 대회가 실시되었는데 순위에 따라 상금을 받았으며, 이번 족구 대회에서 우승한 안산 공장팀은 내년도 성남상공회의소 주관 족구대회에 우승을 목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가을철 결혼 사즌을 맞아 직원 자녀 결혼식



10월 6일 인쇄사업 본부 이병길 본부장의 장녀 이진희 양이 양가 부모님,

친척, 직원들의 축복 속에서 백년기약 화촉을 밝혔다.



자녀 박진수군의 결혼식이 있었다. 예식 시간이 주말 5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하객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13년 12월 21일 제본사업본부 이성 만기장의 차녀 이연진양이 양가 부

모님, 친척, 직원들의 축복 속에서 백년기약 화촉을 밝혔다.

2014수능 수험생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회사 직원 자녀 [PRERPESS 조상용, 인쇄사업본부 김영수, 김일

영, 김기재, 제본사업본부 이선재, 김완수, 김주일, 정창성, 박종천, 김명숙, 김영숙, 박용진, 안산공장 권기형, 관리부 최경현] 14명이 지난 11월7일 대학 수능 시험을 무사히 치렀다. 그동안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아이들에게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제2회 성장기업포럼

행복한 중기씨 공로패 시상식



11월 13일 상암동 중소기업 DMC타워 DMC홀에서 열린 [제2회

성장기업포럼]에서 우리 회사가 고용부문 공로상을 수상했다. 우리 회사는 지난해 탈북자 60여명을 회사로 초청해 기업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 10명을 채용해 화제가 되었으며 팩컴AAP의 경우 2,38%의 장애인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입사를 축하 합니다

4/4분기에 새로 입사하여 팩컴 그룹의 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축하 합니다.



제본사업본부 ¹정승호, ²김상흠, ³신미자, ⁴이화룡, ⁵최순호 / 정비부 ⁶이효철 / 인쇄사업본부 ⁷이동훈, ⁸장영웅, ⁹유태정

2013년 결산 및 2014년 사업계획 워크샵



2013년을 마무리하고 2014년을 새로이 도약하고자 12월 13일~14일 1박2일간 팩컴그룹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13일(금) 오후 업무 종료 후 워크샵 장소인 대부도로 이동하여 2013년 결산보고를 각 부문별 실시하였고, 14일(토) 오전에는 2014년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발표가 각 부서별로 진행되었다.

자녀 출산을 축하 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회사 직원 자녀 3명이 탄생했다. 10월 7일에는 인쇄사업본부 윤전팀 유재

PACOM NEWS



현 사원의 3번째 자녀 유다엘양이 엄마와 아빠의 사랑 속에서 태어났으며, 10월 21일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영업부 비상팀 김지수 과장의 아름다운 공주 김아라양이 태어났다. 관리본부 홍지혜 사원은 9개월간 무거운 몸을 가누며 출근 한 후 출산 휴가에 들어갔으며 12월 5일 심재훈군이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참고로 2013년 6월부터는 부인이 출산을 한 경우 유급 휴가 3일+무급 2일 최장 5일간의 휴가를 출산일로부터 1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변경되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옥상 조경사업 완료



당사 직원들은 하루 평균 두번 본 건물 5층을 방문한다. 구내 식당이 위치해 있지만 외관

은 시멘트 바닥과 난간 외에 특이사항이 없다. 이곳을 옥상 정원 조경 사업을 통해 직원들의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지난 여름 7월에는 우천시를 대비하여 진행된 식당 가는 길의 지붕 공사와 더불어 한층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직원들은 “내년 봄 푸른 잔디와 푸른 나뭇잎이 무성한 옥상 정원을 기대한다”며 즐거운 모습이었다.

안전자해 사고예방교육 실시



11월 월례조회는 산업 재해 예방 차원의 “안전자해 사고사례”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약 1시간 동안 대한산업안전협회 박이병 부장의 열띤 강의는 모두를 집중하게 만들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인쇄, 제본 업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실제 사례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며, 재해 예방을 더욱 확실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원 체력단련을 위한 탁구장 OPEN



체력은 국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체력단련! 10월 19일 사내 탁구장이 새로이 OPEN 되었다. 점심, 저녁식사 후 짧은 시간이지만 탁구를 즐기는 직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탁구동호회 회원도 새로이 모집을 하고 있다.

동호회에서는 향후 직원을 대상으로 탁구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상공회소 성남상공대상 수상 횡철원



11월 28일 제16회 성남상공대상 수출기여대상에 팩컴코리아(주) 횡철원 해외영업부장이 선정되어 수상했다. 상공대상은 성남상의 회원사 CEO·임직원, 공직자를 분야별로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경영의욕 고취와 근로 분위기를 확산,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Agfa Innovation Award 수상



팩컴코리아 김경수 대표이사는 지난 12월 12일 Agfa에서 각 나라 현지법인의 추천을 받아 한국에서는 최초로 아그파 기술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에 김경수 대표이사는 “아그파와 기술적 파트너로 유대를 강화시키고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원성 kothi@sipk.co.kr

대한민국 국민 모두 저자가 되는 그날까지!!

“책 1권도 소중히
만들어 드립니다.”





www.wirecomb.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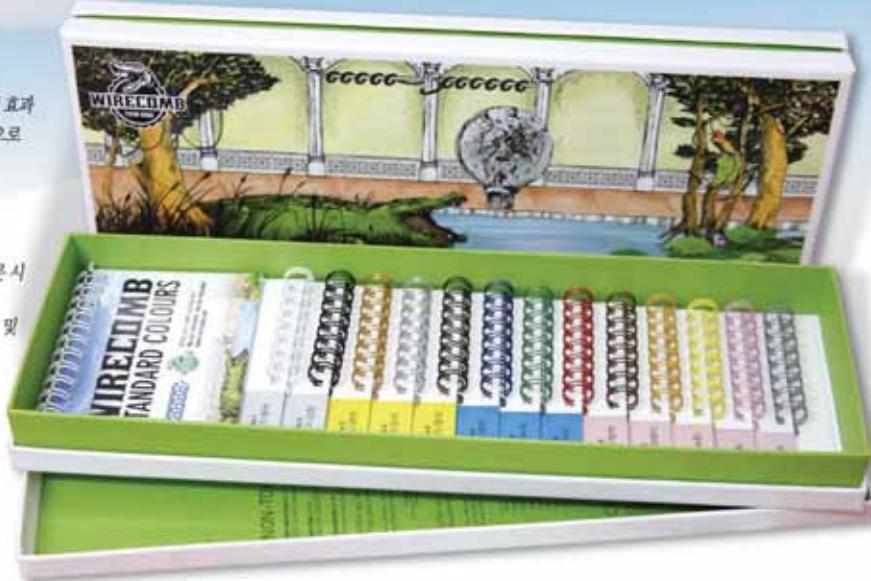
[Excellent Binding Solution]

와이어콤 (WireComb)

'와이어콤'은 사무 및 문구용품 외 다양한 와이어링 제본 및 제책에 사용되는 고품질 트윈링 제품입니다.

제품 특징

- 강력하고 안정감 있는 복 바인딩 효과
- '트윈링 엣지 클린칭 장치' 사용으로 안전성 강화
- 무독성의 친환경적 재료 사용 (SGS 무독성 실험 통과)
- 사용하기 편리하고 간편함
- 다양한 컬러 및 사이즈 고객 주문 시 제작 가능
- 다이어리, 브로셔, 노트, 카レン더 및 다양한 와이어링 제본에 적합



*Strong Binding, Easy & Safe,
Eco-friendly with High Quality*

'트윈링 엣지 클린칭 장치' 발명 특허 보유



와이어콤은 트윈링이 적용된 제본 제품의 최종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커팅된 트윈링 엣지(끝부분)를 구부리는 '트윈링 엣지 클린칭' 장치를 발명하여 특허를 받았다(특허 출원번호 제 2010-0139793 호). 트윈링 엣지 클린칭 장치는 커팅하여 날카로워진 트윈링의 끝부분을 라운드 형식으로 구부려 마감 처리함으로써 해당 트윈링이 적용된 책자 사용 시 찔리거나 다칠 위험성을 없애고 사용상의 불편함을 개선해주는 장치다.

SGS 무독성 테스트 통과!

와이어콤은 소비자의 인체에 접촉되기 쉬운 트윈링 제품의 안정성을 공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제품 샘플에 대해 직접 SGS 흥공지사에 품질 테스트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재료 성분에 들어있는 9가지 성분 항목에 걸쳐 시행된 무독성 여부 실험에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판정을 받음으로써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였다.

SGS는 1878년 설립되어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1,300여개 지사에서 단일 네트워크로 시험, 검사 및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검증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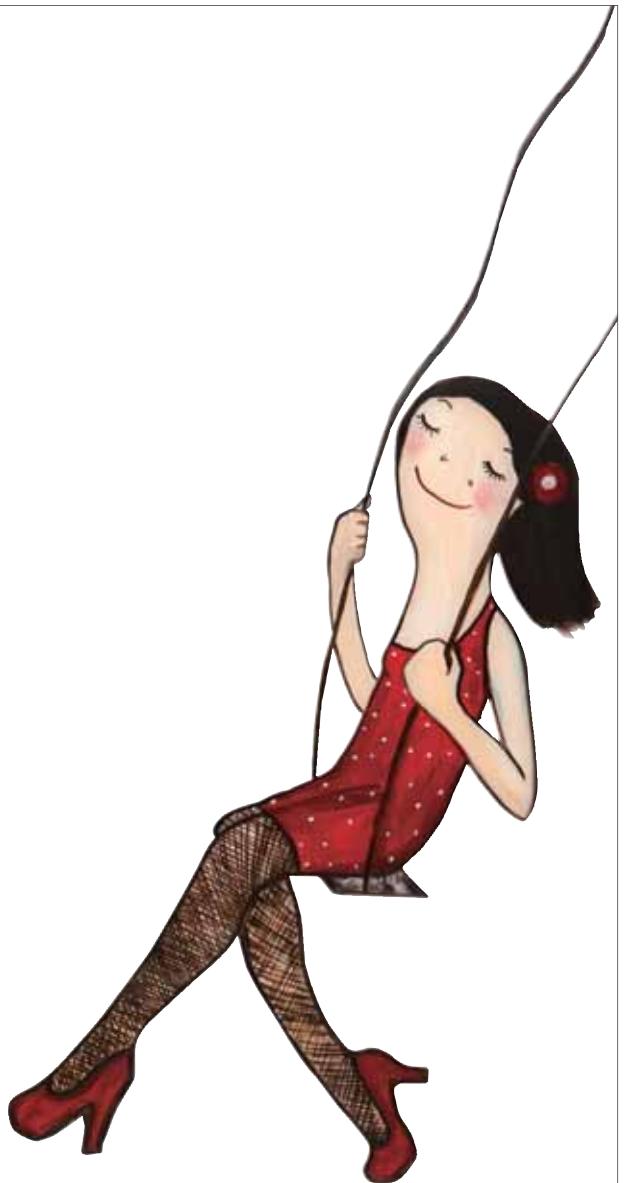
웨컴코리아(주) 트윈링 사업부 / 홈페이지 : www.wirecomb.com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인동 55번지 웨컴코리아(주) 안산공장 내
전화 : 031)483-3666 / 팩스 : 031)483-5857



행복한 그림 이야기

에바 알머슨 · 박향미 지음
김유범 옮김

오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스스로를 내려놓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지친 거 같거든요.
그동안 너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듣고 싶었던 음악을 듣고,
한없이 늘어지게 잠도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하루만 저를 찾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말아요.
문제없을 겁니다.
모든 일은 다 잘될 겁니다.’

에바 알머슨이 그려낸
사랑과 행복!

파컴북스

www.pacombooks.co.kr

다음블로그 blog.daum.net/pacombooks

트위터 @pacombooks | 13,800 원